

지역 소식통

고창군, 7개 지구 지적
제조사사업 완료

고창군이 올해 월곡지구 외 7개지구의 지적제조사사업(1336필지, 78만㎡)에 대한 경계를 확정해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지난 26일 '고창군 지적제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선 452필지에 대해 2곳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개월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통지받은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적제조사 사업은 현실과 불일치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지적도와 입야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공부를 수차례 일원화한다. 토지의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땅지를 해소하는 등 이용가치의 향상과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시스템 효과 입증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도입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며 폐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광고주가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특히 광고주가 자진 철거할 때까지 20분, 10분, 5분 간격으로 반복 전화를 걸어 통화를 방해, 수신 차단 시에도 100개 이상의 발신전용 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연결한다.

정읍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약 175만 건의 경고 전화를 발신하며, 불법 대출 명함, 청소년 유해업소 등 사행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정읍=김대환기자

7공구 산업단지 전환 촉구 건의

부안군의회 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 지역 경제 재건 최선의 방안”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8일 열린 제35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단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부안군이 겪어온 희생과 피해를 강조하며, 농생명용지 7공구를 단순한 농업용지로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산업단지(RE100)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기 의원은 “부안군민들은 지난 30년간 국가적 목표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왔음에도 정부가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외면했다.”며 “7공구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야말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 개발청,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공공시설물 설치 · 유지 관리 방안 촉구”

부안군의회 김형대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은 제356회 제3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안군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대 의원은 “현재 부안군에는 약 300여개의 공공시설물이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부서 지정과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시설물의 노후화



와 파손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신규 설치 및 교체 과정에서 예산 낭비의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부족 △유지 · 보수에 따른 점검과 관리 미흡 △군민의 신뢰 회복 등을 지적했다.

김형대 의원은 “공공시설물은 군민의 삶의 질과 부안군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제안된 방안들이 공공시설물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확정

복지 · 교육 · 건강 등 사회서비스 전반 강화

정읍시가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하고 복지와 사회서비스 전반을 강화하는 데 나섰다.

시는 2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년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률에 따라 수립하고 있으며, 복지, 교육, 건강, 안전, 주거, 돌봄, 고용 등 사회보장 전 영역에 걸쳐 14개 부서에서 40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회의에 앞서 이학수 시장은 “오늘 심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읍만의 색깔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내년 계획을 확정할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이번 수립했던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과 복지 수요 변화에 맞춘 사회보장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배정 인원 6837명

정읍시, 올 대비 320명 확대

정읍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이며, 수행기관별로 모집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내년 노인일자리 배정 인원을 6837명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320명이 늘어난 규모다.

모집 분야는 △노인공익활동(5004명) △노인역량활용사업(1448명) △시장형 사업(305명) △취업지원형 사업(80명) 등으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 대상은 노인공익활동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지역연금 수급자가 해당되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 사업과 취업지원형 사업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희망하는 수행기관에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관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정읍시니어클럽(☎

535-5101)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535-1611) △정읍시노인복지관(☎ 538-3608)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571-9053) △삼진강변노인복지관(☎ 531-0063) 등이다.

최종 선발 여부는 각 신청기관에서 개별 통보하며,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학수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장은 물론 동년배 간 교류와 사회참여를 유도해 노인문제 예방에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어르신들이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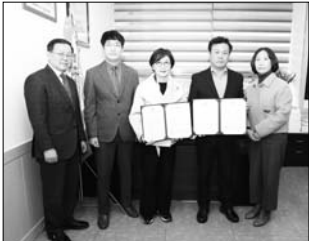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마음사랑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계약

정읍시가 마음사랑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이어나간다.

시는 28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산의료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 재위탁 절차의 일환으로,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 민간위탁 계약은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 5년간 진행된다. 마음사랑병원은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 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서비스 ‘빼기’ 도입

부안군(군수 권익현)에서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신고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부안군은 지난 28일 (주)갑다와 대형폐기물 모바일 신고배출 서비스 ‘빼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에는 읍 ·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으나, ‘빼기’ 도입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신고 대행, 운송 대행, 결재 대행, 종고 매입 등이다.

배출 방법은 폐기물 신고필증 대신 대형폐기물에 빼기번호를 적거나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빼기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군민들이 시간 · 공간 제한없이 비대면 원스톱으로 대형폐기물을 쉽고 편하게 신고 · 배출할 수 있다”며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주)갑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주민 홍보 등을 통해 25년 1/4분기에 ‘빼기’ 서비스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빼기’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